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림책 속 거짓말 들여다보기

김현경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박현경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I. 서론

피노키오, 양치기 소년, 별거벗은 임금님, 토끼전(별주부전)의 토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늑대가 나타난다는 거짓말을 일삼다가 정작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곤란에 처한 양치기 소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인다고 고백한 수많은 신하들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행진을 한 별거벗은 임금님, 간을 내어달라는 강도 같은 용궁으로 끌려가 간을 양지바른 곳에 말리느라 내어놓고 왔다면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거짓말이다. 이처럼 거짓말에 대한 주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한다.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전화, 이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것만 같은 과장 허위 광고를 비롯하여 거짓된 행위들 즉, 탈세와 보험 사기,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자신감과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포장된 성형수술 등 세상에서 ‘거짓’은 진실보다 더 자연스럽게까지 하다. 거짓말에 대한 속담을 살펴보면 거짓말은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권장될 정도이다. ‘거짓말도 잘하면 오려 논 닷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는 속담은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사내가 우비하고 거짓말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속담은 남자의 처세에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더 나아가 거짓말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보기도 한다.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본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불편하게 하고 결국 사회적 부적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거짓말과 진실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인 동시에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효정, 2010:1)

그렇다면 거짓말은 과연 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거짓말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계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린 선악과 사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사건은 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이쪽이나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6)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시편 101:7)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13)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빛 가운데 어두움이 한 점도 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빛 되시는 주님에게 거짓이 조금도 속해있을 수 없다. 진실이 거짓과 양립할 수 없듯,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신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조금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인 관점은 어떠할까? 거짓말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관점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는 거짓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에 거짓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거짓에 대해 어떠한 교육적 관점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거짓말의 의미를 세상적인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살펴보고, 어린이들이 거짓말과 혼동하기 쉬운 몇몇 개념을 거짓말의 유형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하얀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관점에 대해 논하고 거짓말의 원인이 그림책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본론

1.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거짓말

거짓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로서, 비슷한 말로 망설, 망어, 사언, 양언, 허사, 허설, 허언을 들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나 거짓말의 사전적 정의를 넘어, 거짓말의 동기 즉 의도성의 여부에 따라 어디까지를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제가 철학사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져왔다. 거짓말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진술이 실제로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사실성,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의도성, 말하는 사람이 그 진술을 할 때 스스로 그 진술을 믿고 있었느냐하는 믿음”이 바로 그 세 가지 요소이다(김신옥, 1987, 정현주, 선미정, 2006:245에서 재인용).

여러 학자들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도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Stern & William(1909)은 거짓말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틀린 사실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방어 동

기로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Ekman(1985)은 “거짓말(lying) 또는 속이기(deceit)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이예지, 양성은, 2012:23에서 재인용). 이처럼 거짓말의 동기는 거짓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기를 중심으로 거짓말의 유형이 나뉘기도 한다. Genepp & Hess(1986)는 정서조절 동기를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 자존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보호적인 동기와 타인의 기분과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동기”로 구분한다(이효정, 2010:6). 거짓말의 유형도 이와 같이 자기-보호적인 동기의 거짓말과 타인-보호적인 동기의 거짓말로 나뉘기도 한다. 거짓말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한편 학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속이는 것과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하였다. Ekman(1985)은 거짓행동을 크게 숨기기와 속이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숨기기(concealing)란 타인에게 잘못된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정보를 보류하는 것이고, 속이기(falsifying)는 거짓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꾸미는 것”이라고 구분하여 접근하였다(우남희, 2001:99). 한편, Bok(1978)은 “속인다(deceive)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또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상관없이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광의의 개념이고 거짓말(lying)은 협의의 개념으로 속이는 말 중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해를 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정의한다(이예지, 양성은, 2012:23).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어떠한지, 또한 나 자신이나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정의와 유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만 고려한다면 거짓말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거짓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성과 의도성, 믿음의 요소를 초월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말의 의미를 조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거짓은 “인간의 참 존재와 그의 공동체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공존을 해치는 영적 왜곡”이기 때문이다(한국컴퓨터선교회-KCM사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거짓말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나타난다(한국컴퓨터선교회-KCM 사전).

▣ 하나님보다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사야 28:25)

▣ 우상숭배, 복술, 주술과 관련됨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스가랴 10:2)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9)

이처럼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즉,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 도망가고, 사건을 은폐 혹은 회피하려고 하거나 얼굴이나 몸을 숨기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의 선약과 사건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닮아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댄 카르 글, 빌 클락 그림의 『사실대로 말할 걸』(두란노키즈)은 어린이 생활 영성 시리즈 소책자 가운데 한 권으로, 거짓말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거짓말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사실대로 말할 걸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윤선이가 하나님께 쓰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윤선이는 편지의 서두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을 꺼낸다. 윤선이는 털보 아저씨네 꽃밭을 지나다 실수로 망가뜨리게 되는데 무서운 마음에 집으로 뛰어와 버린다. 그리고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고 물어보시는 엄마에게도 학교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결국 털보 아저씨와 엄마는 윤선이가 꽃밭을 망가뜨린 것을 알게 되어 윤선이의 거짓말도 들통이 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인 어린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먼저, 윤선이가 거짓말을 한 사건을 하나님과 윤선이의 사적인 관계로 가져와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것이다. 성경적으로 거짓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짓말의 결과에 따라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 거짓이 전혀 없으시며 거짓을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지극히 관계적인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주님과 관계로 가져와 고백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윤선이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윤선이의 엄마께서 윤선이에게 보이신 태도와 훈계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윤선이의 엄마는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결과에 대해 윤선이를 나무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속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윤선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신다. 이것은 기독교인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함께 근본적인 원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윤선이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윤선이가 거짓말을 한 대상 즉 엄마와 털보 아저씨께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한다는 점이다. 때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나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거짓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다.

2. 거짓말과 놀이를 위한 과장된 말

우리 사회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 인간이 행하는 올바른 길에 대한 해당하는 윤리가 있다. 도덕교육과 윤리적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거나 벌을 주며 훈육하고 있으며 주요한 문제로 비중 있게 다룬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희, 2000; Bussey, 1999). 이러한 거짓말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Morgan(1937)은 놀이상황에서 나타는 유희적인 거짓말(playful lie), 정확한 보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혼란으로 인한 거짓말(lie of confusion),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하는 허영적인 거짓말(lie of vanity), 적의를 가지거나 복수하기 위한 거짓말(lie of malevolence or revenge),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excursive lie), 이기적인 거짓말(selfish lie), 충실함을 표현하기 위하거나 관습적으로 하는 거짓말(loyal or conventional lie)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형분류는 내재된 의도에 따라 농담이나 즐거움을 위한 유희적 거짓말(trick lie), 타인의 복지와 이익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감추려하거나 벌을 피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ie)이다(Bussey, 1992;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그런데 윤리적 차원에서 거짓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놀이상황에서 즐거움을 주기 위한 농담이나, 수많은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있을법한 이야기들이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유희적 거짓말이 윤리적 비난을 받으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며 놀이를 위해 과장된 말로 당당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혼란은 문학작품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거짓말을 먹고 사는 아이』(크리스 도네르 글, 필립 뒤마 그림, 비룡소)에서는 ‘그 이야기 굉장하다’란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은 토마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 꾸며댄다. 엄마가 이야기를 의심하게 되자 거짓말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런 토마를 보는 시각에서 엄마와 아빠는 매우 다르다. 엄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시인의 자질이 있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말을 거짓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야기(또는 놀이)로 볼 것이냐에 따라 윤리적 판단도 양육의 모습도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은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의 유형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유희적 거짓말을 부정적인 판단을 하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 선미정, 2005; 손은경, 2001; Bussey, 1999; Valtin, 1992).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판단이 연구마다 긍/부정이 달랐지만 반사회적 거짓말과 함께 유희적 거짓말은 부정적으로 판단되었다. 유희적 거짓말을 한 후의 주인공의 정서표현에 있어서도 미안하고 겁이 난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영아, 2008; 선미정, 2005). 이는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도덕적 개념을 학습한 아동들에게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은 모두 ‘나쁘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훈계와 양육을 요하는 거짓말과 놀이를 위해 가장된 말의 구분과 함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사회적인 거짓말과 놀이를 위한 가장된 말이 함께 나타나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책이 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미셸 피크말 글, 토마스 바스 그림, 국민서관)에는 두 가지 사실이 아닌 말이 표현되고 있다. 고양이와 공놀이를 하던 피콜로는 유리창을 깬다. 피콜로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라며 고양이와 공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엄마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그런 피콜로에게 엄마는 파이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아빠를 놀라게 하고 싶은 엄마는 파이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아빠에게 옆집에서 만든 거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피콜로는 ‘에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라고 항명한다. 하지만 엄마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장난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유리창을 깬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과 파이를 만들고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닌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말의 의도와 상호간의 암묵적 협의에 따라서 거짓말이 되고, 놀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피콜로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엄마는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의도가 다르다. 또한 엄마의 경우 아빠가 파이냄새만으로 이미 파이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으며 엄마의 말이 장난이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있는 반면 피콜로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왜곡만 있을 뿐이다.



[그림 2]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과 놀이를 위해 가장된 말은 사실이 아닌 진술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책임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자기방어적인 진술이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약을 올리기 위한 의도에 의한 속임의 말들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놀이를 위해 가장된 말이 될 것이다. 유아들의 경우 단지 상대를 속일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즐거움이 될 때도 있다. 이는 거짓말을 잘해서 장기간 옛이야기의 주인공(『거짓말 세 마디』 이용포 글, 김언희 그림, 시공주니어)이나 많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으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감사의 요건이다. 거짓말과 놀이를 위해 가장된 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삶의 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하얀 거짓말의 유혹

거짓말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거짓말은 과연 허용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거짓말을 처음으로 철학의 탐구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A.)로 그에게서부터 현대 철학이 시작하기까지 약 1500년동안 거짓말은 주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하병학, 2000). Augustine이나 Kant와 같은 철학자들은 어떠한 거짓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ussey, 1999, 이은정, 우남희, 2002:188에서 재인용).

그러나 거짓말을 속이는 것인가 아닌가의 측면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대인관계적인 거짓말은 권장되기도 한다(Nyberg, 1993, 권은영, 이현진, 2012:118에서 재인용). Grice(1975)와 Sweetser(1987)는 화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다는 화자가 협력의 원리(화자가 청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원리)에 따라 말했는지에 따라 거짓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권은영, 이현진, 2012:118에서 재인용). Ekman(1985)은 거짓이란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거짓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거짓말과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동으로 분류한다(우남희, 이은정, 2004:96에서 재인용). Erasmus 와 Sidgwick는 인간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정직한 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개인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거짓된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Bussey, 1999; Kerr, 1993; 이은정, 우남희, 2002:188에서 재인용).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거짓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거짓말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논픽션 그림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채택한다. 브리지트 라베 글, 에릭 가스테 그림의 『거짓말 좀 하면 안 돼?』(문학동네)에서 마로는 아빠가 할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목격한다. 언제나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배웠던 마로가 혼란스러워하자 아빠는 때로 거짓말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마로의 친구 말하는 새인 필로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알려준다. 이처럼 이 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보호하기 위해 하는 착한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편 모니케 세페다 글, 익스첼 에스트라다 그림의 『토토, 진실만 말하렴』(푸른길)에서 토토는 거짓말을 했다가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끔찍한 날을 보내게 된다. 어른들은 토토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날 이후로 토토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 어른들은 토토의 솔직한 대답을 좋아하지 않는다. 토토는 언제 진실을 말하고 언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때로는 거짓

말도 필요하다는 모순되는 개념의 양립이 가져오는 혼란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하얀 거짓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거짓말은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거짓말은 왜 문제가 되는가?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도덕성이나 결과에 따른 책임, 공리주의적인 이유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며 거짓을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거짓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컴퓨터선교회-KCM사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44)

성경에서는 선한 의도의 거짓도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3:7, 8).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게끔 만들며, 하나님이 아닌 거짓말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처세술과 같은 거짓말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실 마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패트리샤 폴라코 글, 그림의 그림 책 『나비가 전해 준 희망』(베들레헴)의 주인공 모니크의 엄마는 프랑스 지하 저항군의 일원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때 자신의 집을 유대인을 위한 피난처로 제공하였다. 물론 모니크와 모니크의 엄마는 유대인들이 이 집에 숨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글, 알폰소 루아노 그림의 『글짓기 시간』(아이세움)의 주인공인 페드로는 군부독재정치 하에 군인들이 학교 교실로 들어와 어른들이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무슨 일을 하는지 글짓기를 하라고 했을 때,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적지 않는다. 우리 모니크나 페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가?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흔히 선한 거짓말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 거짓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얀 거짓말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함인가? 우리는 거짓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혹여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에 의지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처세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하얀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율법을 넘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의 일화와 같이, 거짓말이 금지되는 이유를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행위로서의 하얀 거짓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의 원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권위에 순종한다. 그러나 만일 위임권위가 하나님의 상위 권위에 위배되었을 때 우리는 위임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위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즉, 하얀 거짓말이 우리의 이웃을 핍박하고 이웃의 생명을 갈취하려는 권위로부터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얀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하고 탐욕스런 마음이 하얀 거짓말로 포장되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림책에 나타난 거짓말의 원인

하나님께서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6). 그럼에도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다(시편 116:11).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죄 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거짓말의 원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거짓말을 하게 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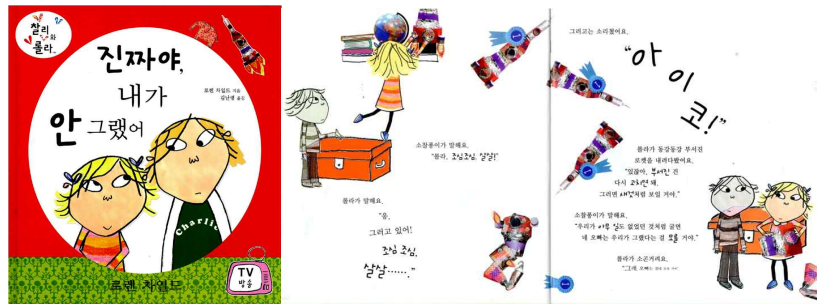
1) 나를 자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Morgan(1937)은 허영적인 거짓말이라고 유형화하였다. 허영적인 거짓말로 안데르센의 『별거뿔은 임금님』에 나오는 신하들과 임금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바보와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보이지도 않은 옷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맨몸으로 퍼레이드를 하기까지 한다.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에서 허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은 무거워』(유계영·지경화 글, 윤희동 그림, 휴이넵)나 재미난 것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자 집에 사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매튜는 거짓말쟁이』(바버라 애버크롬비 글, 린 에이브릴 크라바스 그림, 미래아이)가 있다. 허영의 출발이 관심이나 애정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서 시작하는 관계와 존재 증명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별거뿔은 임금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허영으로 포장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아무도 모를 거야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어떠한 현상들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은폐되어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적극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거짓말에 들어간다.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기 때문이다. 『진짜야, 내가 안

그랬어』(로렌 차일드 글·그림, 국민서관)에서 롤라는 오빠의 로켓을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가지고 놀러다가 망가트리게 된다. 롤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면 오빠는 이 사실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아동들은 어른들의 추궁에 모르쇠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림 3] 진짜야 내가 안 그랬어

『매미』(후카다 이와오 글·그림, 책읽는곰)에서 갖고 싶어 했던 지우개도 아닌데 무심결에 지우개를 훔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친구의 말에 매미의 날개를 떼게 된 이치는 꿈을 꾸게 된다. 문구점 아줌마가 이치의 주머니에서 이치의 잘못을 모아놓은 날개 없는 빨간 매미를 꺼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너무 했구나’란 말을 하며 날개를 붙여서 날려 보내 준다. 이치는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숨기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죄하지 않고 매미를 원래대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존재에 대해 경험한다. 이후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함을 받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함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요일 1:9) 하나님하신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할 때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로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림 4] 빨간 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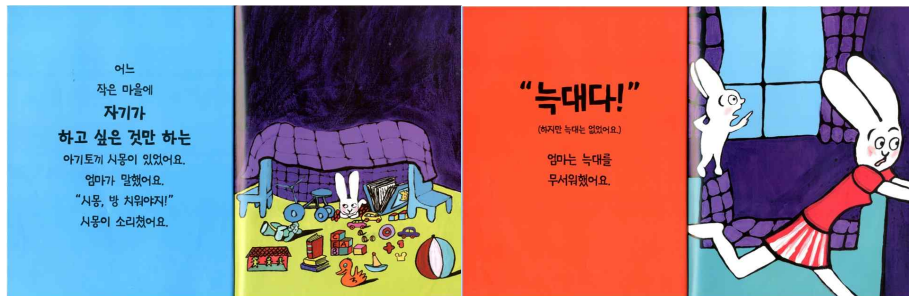
3) 혼나는 게 무서워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행동을 꼽는 거짓말의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벌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반사회적 거짓말이다. 이러한 거짓말은 이미 부모의 추궁이나 질책에 대한 선경험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실제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부모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질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대로 말할 걸』(덴 카르 글, 빌 클락 그림,

두란노키즈)에서 윤선이도 실수로 넘어져 꽃밭을 망가트리자 야단맞을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꽃밭을 망가트린 것은 죄의 문제이기보다 실수의 영역이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의 영역이다. 여기서 윤선이의 엄마는 꽃밭을 망가트린 것이 아닌 거짓말에 대해 경책하면서 속은 사람들의 맘이 상하고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엄마, 꽃밭의 주인에게 각각 용서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윤선이의 엄마의 경우 실수의 영역과 죄의 영역을 구분하여 적절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혼을 내거나 벌을 내리는 경우 그것이 실수인지 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실수 또는 죄에 따라 알맞은 징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징계의 목적은 그 행동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을 받는다면 단순히 징계가 무서워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4) 책임지기 싫어

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두산국어사전)를 뜻한다. 아동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늑대다!』(스테파니 블레이크 글·그림, 한울림어린이)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기토끼 시몽의 이야기가 나온다. 시몽은 방을 치우라는 엄마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거짓말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 근처에는 게으름과 나태와 무책임이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이럴 때 2차로 드러난 거짓말보다도 양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림 5] 늑대다!

아동들의 행동에 대해 아동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아동들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도 제한적이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미셸 피크말 글, 토마스 바스 그림, 국민서관)에서 피콜로는 유리창을 깬다. 이럴 때 피콜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유리창을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지도 않다. 단지 유리창을 치우기 위해 양동이와 삽을 가져다 아빠에게 드리는 것이 전부이다.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 과도한 책임과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훈육의 경험은 오히려 역효과로 잘못을 회피하게 할 수 있다. 피콜로가 자신이 한게 아니라고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할 때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알려주며 돕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5) 갖고 싶어

Morgan(1937)의 거짓말의 유형 중 이기적인 거짓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염소가 낳은 송아지』(차보금 글, 이부록 그림, 을파소)는 에티오피아의 설화를 재화한 그림책으로 자칼이 잡은 암소를 부러워하던 표범이 몰래 자칼이 송아지를 훔쳐다가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고서는 자신의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약 1:15)는 말씀과 함께 성경은 욕심을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였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엡 2:22) 과정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거짓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해 보았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거짓말’을 살펴본다는 것은 윤리적 혹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뜻한다.

거짓말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거짓말은 불신을 낳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아 지금까지도 수많은 죄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했고, 두려움이 생겼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평안과 사랑에 의지하는 모습,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은폐하고 싶은 한편 거짓말을 한 후 감출 수 없는 불편함과 억눌림에 괴로워하는 모습, 혼이 날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혹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그림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책은 주로 아동을 내포독자로 하고 있기에 그림책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인 특성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아동과 함께 읽을 때에는, 먼저 아동이 거짓말과 놀이를 혼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거짓말과 놀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고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또한 하얀 거짓말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하고 옳은 것이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그림책을 함께 읽는 성인이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일상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경계하고, 아동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거짓말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이 왜 나쁜지, 거짓말을 한 것에 대

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과 다시 돌이키지 않으리라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거짓말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며, 거짓말이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거짓말에 의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짓은 한 점도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내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따라 거짓을 멀리 해야 한다.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레미야 7:8)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편 119:29)

우리에게 익숙한 피노키오 캐릭터는 이탈리아의 극작가 카를로 로렌치티(Carlo Lorenzini)가 콜로디(Collodi)라는 필명으로 어린이를 위한 글 『피노키오의 모험 (Le avventure di Pinocchio)』의 초안을 「Giornale dei bambini」(소년 신문)에 연재하면서 탄생하였다. 피노키오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속임수에 넘어 가는 피노키오의 연약한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와 좌절감 너머에는 언제나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다. 나무막대기에 지나지 않던 피노키오를 깊은 애정을 갖고 손수 깎아 만들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을 보여주는 제페토 할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거짓말로 인한 불신, 그리고 이어지는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요한일서 4:18)고 말씀하신다.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베드로 전서 4:8)고 말씀하신다. 불신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짓말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날마다 거짓말의 유혹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은영, 이현진 (2012). “한국 아동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5(1), 117-133.
- 김경희 (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1), 81-93.
- 김신옥 (1987). “어린이의 거짓말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영아 (2008).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79-1091.
- 선미정 (2005). “의사소통 맥락에 따른 아동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의 차이”.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손은경 (2001).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우남희 (2001). “한국 아동의 거짓행동에 관한 연구 I: 거짓말과 부정행위에 대한 경험 및 평가.” 『아동권리연구』, 5(2), 97-111.
- 우남희, 이은정 (2004).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태도 분석.”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7(3), 95-115.
- 이예지, 양성은 (2012).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4), 21-36.
- 이은정, 우남희 (2002). “한국 아동의 거짓행동에 관한 연구 II: 거짓행동의 유형별 경험과 허용도 분석.” 『아동권리연구』, 6(1), 191-209.
- 이효정 (2010). “아동기 자기 보호적, 친 사회적 거짓말의 출현 및 그 발달적 관련 변인: 타인의 마음이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정현주, 선미정 (2006). “아동의 거짓말 개념정의 및 도덕판단에 대한 겸손함의 효과”. 『아동교육』, 15(4), 243-258.
- 하병학 (2000). “거짓말의 현상학.” 『철학과현상학연구』, 15, 244-290.
-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London: Quartet Books.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_____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 Ekman, P. (1985). *Telling lie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 Genepp, J., & Hess, D.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rice,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 Morgan (Eds.), *Syntac and semantics*(Vol. 3): Speech Acts(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Kerr, P. (1991). *The penguin book of lies*. 한국경제신문사 출판부 역 (1993). 『역사적인 거짓말』.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Nyberg, D. (1993). *The varnished truth: truth-telling and deceiving in ordinar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rterson, C., Peterson, J.,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Stern, C., & William, L. (1909). *Testimony, and lying in early childhood*. Wax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weetser,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an examination of the folk models underlying a semantic prototype. In D. Holland (Ed.),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pp. 43-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그림책 목록

이용포 글, 김언희 그림, 『거짓말 세 마디』(2008), 시공주니어.
차보금 글, 이부록 그림, 『염소가 낳은 송아지』(2010), 을파소.

Written and Illustrated by 福田 岩緒, *Akai Semi*(2006), 한영 역(2008), 『빨간 매미』, 책읽는
곰.

(그림책 제목 가나다 순)

Written by Brigitte Labbe, Illustrated by Eric Caste'(2008), 이희정 역(2009), 『거짓말 좀 하면
안 돼?』, 문학동네.

Written by Chris Donner, Illustrated by Philippe Dumas, *Je Mens, Je Respire*(1990), 최윤정
역(2003), 『거짓말을 먹고 사는 아이』, 비룡소.

Written by Antonio Ska'rmeta, Illustrated by Alfonso Ruano(2000), 서애경 역(2003), 『글짓기
시간』, 아이세움.

Written and Illustrated by Patricia Polacco(2000), 최순희 역(2005), 『나비가 전해 준 희망』,
베들북.

Written by Michel Piquemal, Illustrated by Thomas Baas, *Piccolophilo: Non, c'est pas
moi*(2011), 이정주 역(2012),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서관.

Written and Illustrated by Stephanie Blake, *Au loup!*(2005), 김영신 역(2010), 『늑대다!』, 한
울림어린이.

Written by Dan Carr, Illustrated by Bill Clark(2004), 권혜신 역(2009), 『사실대로 말할 걸』,
두란노키즈.

Written and Illustrated by Lauren Child, *Charlie and Lora: Whoops! But it wasn't
Me*(2006), 김난령 역(2007), 『진짜야, 내가 안그랬어』, 국민서관.

Written by Monique Zepeda, Illustrated by Ixchel Estrada(2010), 정은미 역(2010), 『토토, 진
실만 말하렴』, 푸른길.

인터넷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3. 10.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kcm.kr/dic_view.php?nid=40770&key=&kword=%B0%C5%C1%FE&page=

(검색일: 2013. 10. 5)

한국컴퓨터선교회-KCM사전